

대학 중 · 장기 발전 계획안 수립

교육 · 연구 · 행정 · 재정 분야로 나눠 구체적 추진

기획인사처(처장=이영환·경제학)가 본교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본교 행정부와 교수,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도기반과제 공모를 통해 수립한 것이며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로 나뉜다. 교육분야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우수교수 확보 △열린 교육체계 수립 △우수학생 선발 및 배출 △교육환경 개선을 선도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 △전공실력 향상 도우미 제도 등의 계획안을 선정했으며 이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 사업은 2005년도 교양교육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 분야는 교수연구의 수월성 확보와 특화분야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 인프라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 △특화분야 집중 지원을 중점과제로 확정했다. 세부과제로는 △외부수탁 연구비 수주향상 △연구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방안이 선정됐고 디지털 도서관을

신설하기 위해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분야의 경우 전자캠퍼스 구현을 중점 과제로 △웹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구내 온라인 견적 △발주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아이템을 결정했다. 또한 재정분야는 재정자립화를 위한 △수익구조 개선 △기금 조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동문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동국 에코네트워크 구상 등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교육·대학 운영의 중·장기 방침은 본교 구성원들의 직접

적인 참여에 의해 선정되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 박동수 팀장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중·장기 계획안인 만큼 기획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인사처는 본교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선정된 선도기반과제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해 앞으로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축구부 전국대회 3위 입상 쾌거

4강전에서 수원시청에 2대1로 아쉽게 패배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3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대학과 실업팀 등 총 5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동안 열전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축구부는 안양HC를 2대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으나 수원시청에게 1대2로 패배해 대회규정상 3, 4위전 없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지난 17일 경남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수원시청과의 4강 경기에서 본교는 상대에게 연속으로 두 골을 내주었으나 후반전에 김한섭(체교4) 군이 1골을 넣어 추격의 불씨를 지켰다. 하지만 끝내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축구부 김상호 코치는 “짧음과 패기를 앞세웠지만 몇 명의 프로선수 중심으로 구성된 수원시청의 노련미에 밀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축구부는 지난 2000년 '제55회 전국남녀대학축구선수권대회' 우승 후 계속되던 침체기에서 벗어나 또 한번의 쾌거를 이뤘다. 축구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춘계대학연맹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야구부(감독=김학용)는 오는 27일부터 24일간 열리는

'2004년도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학 총 30개 팀이 출전해 4개의 조별리그로 예선전을 진행한 후 상위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교는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 8개 대학과 한 조에 편성됐으며 오는 28일 고려대와 인천 야구장에서 첫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야구부의 김석기 코치는 “최근 몇 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본선진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24일까지 조기졸업 신청 평균 평점 4.0이상 가능

학사지원실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조기졸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요건은 평균 평점이 4.0이상인 자로 단과대별 최소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04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가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진행된다. 수강과목 취소 처리 절차는 소속대학 교과과 및 학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취소신청서를 출력해 학업지도교수와 상담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수강신청 취소 후 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지난 21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졸업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번 졸업선언대회는 기존 5월 축전에서 진행되던 한총련 졸업식을 약식으로 진행한 것이며 △한총련 의장 추대 △졸업선언문 낭독 △학원자주, 민족자주, 새정치실현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운동기간 승리를 위한 한총련 결의의 밤 등으로 진행됐다. 최우석 기자 kaur121@dongguk.edu

고승 초청 대법회 정각원에서 내일 열려

고승 초청 대법회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고승초청 법회는 김현해 동국학원 이사장이 '불교를 알면 세상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설법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원총, 학생대표자회의 열려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오늘(22일) 오후 6시 대학원 세미나 1실에서 대학원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대학원 각 과별 대표자가 참석

하는 이번 회의는 △한학기 사업 계획 방향제시 △감사위원장 선출 △집행부 인준 △대표자 의견 수렴 등의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31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가해야 한다.

직원노조 8% 임금인상 요구

다음주 중 학교측과 논의자리 마련할 예정

직원노조가 지난 15일 2004학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법인 측에 제출했다. 이번 임금인상 요구는 정률 8%로 민주노총에서 물가상승률 및 국가 경제지표를 통해 결정된 10.5%보다 2%가량 하향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병원개원과 중·장

기 계획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사회는 학교 측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했으며 이에 학교 측은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노조측 교섭위원과 학교측 교섭위원이 만나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명대 교수팀 간다라 유물 발굴

토기 탈 조각 등 ... 한국팀 사상 첫 발견

본교 문명대(미술학)교수팀이 파키스탄 후기 간다라 문명의 대표적 유적지인 조울리안I 옆 조울리안II 사원지에서 불두상 1점, 대형 탈 파편 1점, 등잔 3점 등을 발굴했다. 이번 발굴된 유물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실물 크기의 대형 토기 탈 조각은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의 조각상과 유사한 형태다. 따라서 신라 처음탈의 원류가 고대 인도와 연관돼 있다는 단서를 얻게 됐다. 또한 벽을 파고 안에 불상을 안치하는 감실 속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등잔도 섬

세한 곡선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굴은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로 평가되는 간다라 유적에 대한 한국 유물 발굴팀이 거둔 첫 수확이어서 더욱 환영받고 있다.

총장공로장학금 수여

지난 17일 총장실에서 공로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로장학금은 김강일(토목2) 군 등 2명이 수상했다. 김강일 군은 건강회로 훈수상태에 빠진 부친에게 형과 같이 간을 이식했다.

24일 참여사회 포럼 열려

정부 비정규직 정책 토론

제39회 참여사회 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향후 계획을 평가하고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각 분야의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조진원 소장이 맡았으며 민주노총 관계자,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개설

대외협력처(처장=유덕기·생명자원산업융합학)가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동국발전기금 뉴스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 △동국발전기금 참여 △기부현황 등이 게재됐다.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례로 29일자 신문은 쉼니다. 다음 신문은 4월 5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보리수

출가의 의미

불교에 관한 많은 의문 내지 비판 중에 하나는 출가와 관련된다.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는 태생적으로 출가의 종교였다. 인도에서 해탈을 위한 종교적 노력은 출가하여 수행한다고 하는 전통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부터 불교의 출가수행 전통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불교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심지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저변에는, 심지어는 출가 사회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인도에서만 아니라 후대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배불(排佛)의 논리로 무장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문제제기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불교측의 대답은 어떠하였던 것일까? 한 바라문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도 그 모범

답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있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여 수행을 하여 진리를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얻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삶의 고뇌를 덜고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요지의 말씀에 그 바라문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오늘 우리 현실의 여기저기를 바라

볼 때,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번뇌를 떠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스승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깨침을 가진 스승으로서의 출가인이 필요하고,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김호성 불교대 인도철학과 교수

지면안내

4면 사회

위안부 문제 해결 600차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앞에서 벌인 시위가 600회를 맞은 지난 17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보았다.

5면 사람

축구부 감독 인터뷰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본교 축구부를 3위로 이끈 김용해(체교 81졸) 동문을 만나 성공요인 등에 대해 들어봤다.

8면 생활

엠티를 알아본다

대학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엠티. 그러나 엠티의 변모 과정과 함께 독특한 엠티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남들과 다른 '시간'을 드립니다

동대신문사에서 제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 25일(수) 오후 6시까지 V동 1층 동대신문사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사

임시 학생대표자회의 열려

학생총회 성사·동맹휴업 등 논의

'2004학년도 임시 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늘(22일) 오후 6시 만해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시 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17일 열렸던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아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안건으로 △학생총회 개최 여부 △대통령 탄핵과 등록금 인상 반대 동맹휴업 찬·반 투표 진행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에는 학생총회 성사 인원을 1/5이상 참석에서 1/10이상 참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있다. 또한 학생대표자회의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전환시켜 기존 총회가 과학생회장 이상 참가했던 것에서 단과대별 학년대표, 반대표들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체계 변화를 시도

하는 것도 있다.

그동안 일부 담당자들의 주도로 진행돼 오던 2000년 새터 사고 희생자 추모제를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임무로 정식 인정할 것 역시 회칙 개정의 일부로 상정됐다.

또한 현재 단과대별 학생회 선거를 맡아오던 비대위 체계를 대신해 '연석회의' 제도를 마련할 것이 안건으로 제출됐다. 연석회의 체계는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을 시 해당 단과대내 과 학생회장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이 곳에서 의장을 선출해 임시로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학생대표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학생회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이다.

현재 한 학기 당 8천원을 지불하고 있는 학생회비를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할 것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측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액수를 학생들에게 걷고 있지만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 학생회 내에서는 몇 년째 고심해 오다가 이번에 들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열리는 임시 학생대표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논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학생총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지난 17일 열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학생회 회칙 개정 및 총노선, 1년사업 계획 등의 일부 안건 등이 회의의 거쳐 결정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한표의 권리 위해 ...

총학생회(회장=구자룡·이건영문4)가 지난 15일부터 부재자투표신청소를 △중앙도서관, 동국관 △문화관 △학생회관에 설치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지를 받는다. 본교 학생 2천명 이상이 신청해야 오는 4.15총선 때 학내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며 성사시 신청학생은 해당학과사무실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단과대 학생회 보궐선거 실시

내일부터 3일간 진행 ... 법대 24일부터 실시

2004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보궐선거가 내일(23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 출마 단과대는 △불교대 △이과대 △정산대 △예술대이며 투표는 해당 단과대 건물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그러나 이과대의 경우는 생물학과 학생들이 생자대 건물에 수업이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와관도 함께 투표소가 마련됐다.

각 단과대 출마자 공약은 △불교대 김재동(불교4), 박동국(불교4)=선·후배간 관계 개선을 위한

'선배 책임제'의 도입 △이과대 이학근(화3), 박진영(수3)=토익 초경강연회개최 및 소모임 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정산대 김영훈(컴공3), 김현정(멀티공3)=현재 정산대내 혼재돼 있는 학부제와 학과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술대 이진영(영화4)=예술대 캐릭터 사업에 벌여 이에 대한 수익을 보육시설에 기증할 계획 등이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25일 오후 7시부터 각 단과대 해당 건물 투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법대는 후보자 등록이 기간 보다 늦어진 관계로 다른 단과대 보다 하루 늦은 24일부터 3일간 동국관 1층 로비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법대 보궐선거에서는 조진우(법4), 김진주(법3)후보가 출마했으며 '상식이 통하는 학생회'를 구호로 내세웠다.

또한 주요 공약으로는 △계산고 시학사와 연계한 학업분위기 창출 △법과대 이전 문제 총실 △내내 소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대학부 dmz@dongguk.edu

한국문학연구신회 출간 우수논문 편집 후 수록

출판부가 한국문학연구신회 열 번째 권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과 열한 번째 권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을 출간했다.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은 북한 문학을 규정하는 문학제도와 문예이론과 관련한 흥기삼(국어국문학) 교수 외 13명의 논문이 실렸다. 또한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은 동아시아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 대한 17편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문학연구신회는 한국문학연구신회에서 특정 연구과제를 선정할 후 이와 관련한 우수 논문을 편집해 장기 기획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학연구신회의 한 관계자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소개하고 한국문학 연구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향기' ...

총학생회가 지난 18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인도노년인모금 활동을 위한 전통인도차 '짜이'를 판매했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원총 기초·기획강좌 신청 접수

오늘 22일부터 6일간 원총 사무실에서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기초강좌와 기획 강좌 신청을 받는다.

기초강좌 접수는 오늘(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받으며 강좌는 △기초영어 △논술 △실용한문 △영

어독해 △기초통계 분야로 오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된다. 논술과 기초통계는 올해 새로 개설된 분야이다.

한편 기획강좌 수강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강좌는 '야생의 영토, 몸과 살-메를로 푸티 철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조광재 철학아카데미 대표가 강의한다.

다음달 14일부터 7주동안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현상의 장 △몸에 저항성 △몸의 △몸의 구체적인 공간성과 시간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만원이며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신청가능하다.

동연 동아리 박람회 개최

22일부터 이틀간 진행...24일 해오름식 열려

동아리연합회가 오늘 22일부터 이틀간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분과별 거리전과 동아리 특별지원금 인상 선전전으로 진행된다.

분과별 거리전은 행사기간 동안 아침 10시부터 30~40여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며 분과별로 △학생회관 △팔정도 △동국관 등에서 진행된다.

또한 동아리 특별지원금 인상 선전전은 정산대 앞에서 열릴 노

전카페에서 22일, 23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시물과 선전물을 통해 동아리 특별지원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해오름식은 오는 24일 학생회관 앞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해오름식 행사에서는 △1부=동아리박람회 폐막식 △2부=파병반대 영상물 상영, 동아리 회장단 인사, 풍물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공대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오는 24일 2개 강좌 진행

산업시스템 공학부가 주최하는 외부강사 초빙 특별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New Business Model'의 성공요인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미나는 박성철 SK엔카 사장이 초빙돼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6시30분 원흥관 E217에서는 조인순(식품공학93졸) 보건환경연구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식품공학도의 자세와 진로'를 주제로 강연회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신입생 환영 연주회

2004.3.31(수) 저녁 6:00

장소 대학본관 중강당

주관 사범대학

후원 동대신문사, DUBS

Program

- Henri Dutilleux (1916~) Sarabande et Cortège - Violincello
- 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Bassoon Concerto in F major, Op.75
 - 1.Allegro ma non troppo
 - 2.Adagio
 - 3.Rondo Allegro
-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Cello Suits No.1 G Major BWV.1007 中 Prelude
-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Cello Sonata in A minor 'Arpeggione' D.821
 - 1.Allegro moderato
 - 2.Adagio
 - 3.Alletretto
-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Piano Trio No.7 flat Major Op.97 'Archduke'
 - 1.Allegro moderato
 - 2.Allegro Scherzo
 - 3.Andante Cantabile
 - 4.Allegro moderato
- Pablo de Sarasate (1844-1908) Zigeunerweisen (집시의 노래) Op.20-1 Eugene Park Selection - Violin

Bassoon 임현철, Violincello 홍지영, Violin 유진박, Piano 오소진

동국사랑의 큰 실천!

동국대학교 자동차 보험 가입

동국대학교 자동차보험 가입은 기부자의 특별한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국대학교에 기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국의 자동차보험을 모두 서비스하오니 상세히 비교하시고 상담하신 후 동국사랑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외협력처(02-2260-3794, 3883) 또는 (주)자동차보험주식회사(02-2192-89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회전무대

자리 사수결기대회

0...이번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린 중강당 좌석은 학생대표들에게는 가시방석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워 안전 중 일부가 통과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학생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던 만큼 끝까지 학생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지켰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회의좌석과 함께 책임감도 들쭉날쭉(!)"

무인 신청소

0...지난 18일 동국관 로비에는 하루 종일 '부재자 투표 신청소'라는 명패만 붙어있었다는데.

알아보니 부재자 투표 신청소를 맡았던 모 단과대 한 대표자의 연락 두절로 이를 열지 못한 것이라고.

총선을 맞아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시급한 만큼 단과대 내 다른 학생들이라도 부재자 투표 신청을 실시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부재자 투표 신청소에 부재한 관리자를 투표하라(!)"

완전범죄

0...학생회와 동아리를 비롯한 학내 각 단체들은 지난 17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알아보니 학내에 설치된 플래카드와 게시판에 붙어있던 홍보물의 상당수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기 때문이라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플래카드 등을 동의 없이 제거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일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일만이 천 동안인의 눈을 속인 당신, 훌륭합니다(!)"

서비스 제로

0...학내 서점의 독재 권력에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유인즉 교내 서점이 개정된 저 이미 오래된 책을 판매하고 불친절한 등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 만큼 서비스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생색내는 다량관 서점, 진짜 생색쯤 내보시지(!)"



교원업적평가 개정 진단

교수회 요구사항 적극 반영한 평가

시행세척 평가기준 객관성은 우려돼

교원업적평가 중 연구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척이 일부 개정돼 이번 학기부터 적용됐다. 이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면서 연구업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지 10개월만이다.

개정된 시행세척을 살펴보면 논문과 관련해 △국내저명학술지 개수 제한 폐지(기존 5개 제한) △국제저명학술지 평점 상향 조정(200→300점) △국제일반학술지 신설 △국내일반학술지 기준 및 평점 조정(기존 학술논문집 기준과 통합) △국내대학발행학술지를 기타 학술지 인정(기존 불인정) 등이 세척이

개정됐다.

이중 특히 국내저명학술지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내대학발행학술지를 기타 학술지로 인정함에 따라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초고를 학술발표점수에 가산하고, 공동연구원 환산율을 조정해 주저자에게 10%~20%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의 세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 회 회장은 "그동안 교수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교수들의 연

구능률을 향상시키기보다 승진·재임용하기 좀더 수월하도록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모두 국내저명으로 인정되고 교내연구소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등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양적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얻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는 학술지에 게재해도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교수들이 질보다 양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교육업적평가개정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업적평가 시행세척부분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기준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에 대한 교수자신의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는 내용에 상관없이 제출한 하면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연구처장은 "교육업적평가개정은 교수들의 '교육업적평가개정은 교수들의'를 위한 진일보된 방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사설

지속적인 상위권 도약을 위해

축구가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이번 대회가 대학팀뿐만 아니라 프로와 실업팀까지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고 규모였던 만큼 지난 2000년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승과 지난해 농구부 전국체전 준우승 이후의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전 골키퍼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학교측의 너털하지 않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 하나로 응집했던 모습은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축구부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도약하기에는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잔디 구장이 없어 선수들의 부상위험이 클 뿐 아니라 실전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잔디시설을 갖춘 타 대학에서 훈련하고 있고, 전광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야간에는 연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다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야구부는 본교 주변에 마땅한 훈련장소가 없어 매일 일산으로 이동해서 연습해야 하고, 농구부도 낡은

체육관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학교측의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물론 불교병원 개원준비와 중대병원 매입 등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학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잔디시설을 확충하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또 우수감독이 떠나지 않도록 감독 연봉 또한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내 구성원들이 체육부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고전과 같은 타대학과의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제안한다. 이는 본교 체육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학내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체육부로부터 의외의 성과를 바랄 수만은 없다. 예상치 못한 쾌거를 바라기보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의 체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다.

신임 연구처장 인터뷰

“의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할 것”



작성 등의 기본적 행정 작업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내 연구비 역시 최대한 확충시켜 교수들이 의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개정됐는데.

=교수들의 논문 게재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그동안 한 학과 당 5개로 제한돼 있던 논문 제출 제한을 폐지하고 대학 발행 논문집에 게재할 경우에도 점수로 인정하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점수 차이를 강화했으며 공동연구원인 경우 주저자에게 보조원보다 점수를 우대하는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계획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외국대학에 여학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다. 또한 현재 동남아와 일본에 치우쳐 있는 자매 대학을 북미지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부 생활에게 편중돼 있는 자매대학간 교류 기회를 대학원생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신임 정보관리실장 인터뷰

“바이러스 없는 동아 만들 터”



교수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충하고, 동문·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후배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바이러스 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은.

=현재 학내에 상당 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학내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바이러스 프리 존(Virus Free Zone)', 즉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해 학내 모든 PC에 인터넷 접속 시 바이러스 백신이 자동설치 되도록 하는 바이러스 감염 퇴치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스팸메일로 인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용자가 읽지 않은 편지 중 읽을 편지를 '읽을 편지함'으로 이동시킨 후 읽지 않은 편지를 스팸메일로 선택해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스팸메일 중 바이러스를 발생시키는 메일이 수신되었을 시에는 바이러스 벽(Virus Wall)을 통해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메아리

역사의 아이러니

▲국회의사당 정문이 열리며 300여명의 경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구의 경위들은 눈에 띄는 대로 야당의원들을 폭행해 의사당 밖으로 내몰아냈다. 경위들이 난입한지 한 시간 후 장내에는 자유당의원들만이 남았으며 '의장을 소란케 한 사람을 퇴장시켰음을 선포합니다'라는 한희석 부의장의 사회선포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는 1958년 12월 24일 여당인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 경호권을 발동한 사건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농성에 들어간 야당 의원 중 10여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에 경호권을 발동한 사례 중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가 결을 막기 위해 4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점거농성을 진행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경호권을 발동하라고 권유했다.

결국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0여명의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갑신정변'이라 명명되는 노태통령 탄핵

안 통과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전 지역과 연령에 걸쳐 지지를 1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광화문 앞에 20만의 시민이 참가하기도 했다.

자유당이 의원 숫자만을 믿고 민심을 거스른 채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행하다 4.19 의거로 몰려난 것과 같이 숫자논리로 탄핵안을 통과 시킨 야당에게도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간 조병옥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지하실이 나 휴게실에 연금돼 있다가 법안 처리가 끝난 후에야 풀려났다. 풀려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민세'를 부르며 분투를 삼켜야 했다.

노태통령 탄핵을 주도한 조순형 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 통과 이후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는 알고 있을까, 자신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56년 전 자신의 아버지인 조병옥 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몰아낸 자유당 의원들과 똑같이 비추진다는 것을 말이다.

최우석 대학부장
kauri21@dongguk.edu

2004-1학기 단풍연(단과대학 품물페 연합)

연습일정안내

기간 : 2004. 3. 1 ~ 8. 31

1. 요일별 연습일정표

장소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풍연 연습실 (학생회관 지하 1층)								합시 사용
대운동장	20:00~20:30	사	용					

2. 예외일자(5회로 제한)

NO	일시	장소	비고
1	3월 20일(토) 18:00 ~ 20:00	만해광장	
2	4월 10일(토) 18:00 ~ 19:00	만해광장	신입생 환영회
3	5월 20일(목) 20:00 ~ 20:30	대운동장	
4	5월 27일(목) 20:00 ~ 20:30	대운동장	
5	5월 28일(금) 18:00 ~ 23:00	만해광장	단풍연 판국 한마당

3. 기타 : 위 일정표와 예외사항 외에 학생처와 협의되지 않은 일체의 외부연습 및 공연은 불가함.

학생처

「1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소개

집단명	참가대상	일시
발표불안 극복 집단	발표할 때 가슴이 뛰고 불안한 사람, 발표를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	매주 목 2~4시
대인관계 향상 집단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싶거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매주 금 2~4시

◆ 기간 및 횟수
4월 8일~5월 21일까지, 매주 목·금, 각 집단별 7회씩 진행

◆ 접수 및 문의
4월 2일(금)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학생상담센터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제학생의 기업업무 적성 및 인성 특성 파악에 도움을 주고, 인·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매경 인재평가개발원에 의뢰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 종류 : 매경 직무종합검사

2. 검사 일시 및 장소
 ■ 1차 : 3월 31일(수)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 2차 : 3월 31일(수) 오후 5시 30분 학림관 소강당
 ■ 3차 : 4월 1일(목)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3. 검사 소요시간 : 10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 총 비용 7,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업위가 지원

6. 접수기간 : 3월 26일(금) ~ 3월 30일(화)

7. 접수방법 :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위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8. 검사결과 수령방법 : 4월 7일, 8일 학생상담센터에서 수령

※ 문의(구내전화) : 학생상담센터(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학생상담센터 · 졸업준비위원회

2005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07. 2월 졸업 예정자
 ○ 입관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28. 2. 28 ~ 79. 3. 2)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4. 10까지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바. 사진 4매(4×5cm).
 나. 수능성적(원점수) 1부. 사.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아. 가산점 증명서류 각1부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마.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군정학생
지원서 교부 / 접수	'04. 3. 15 ~ 4. 10
체력검정	4. 12 ~ 4. 17
신체검사·면접평가	4. 19 ~ 4. 30
인성검사/신원조회	5. 24 ~ 8. 14

6. 최종 합격자 발표 : '04. 8. 16 ~ 8. 21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의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 (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직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12년간 시간이 멈춘곳에 '힘없는 조국'의 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된 지 59년이 지났지만 해방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강제 연행돼 수모 당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12년 동안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를 하며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92년 1월 8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인 시위가 600회를 맞는 지난 17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녀, 일본인 등 국제 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비좁은 일본대사관 앞 도로 위에 모였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폼으로 스크림을 찢고 둘러싼 전경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일본야! 정신대는 네 얼굴이다'
위안부 할머니의 피켓과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집회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 10여명과 고등학생, 정치인,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붉은 카드를 들고 일본정부가 정신대 문제를 공식사과하고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특히 오키나와 일본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직접 만든 노래를 연주하고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할머니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국에 왔다"며 "들어와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 얼굴과 일장기에 낙서한 사진을 들고 집회장 가운데에서 항의하는 일본인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집회가 끝날 무렵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600차가 말이 되냐, 나라가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며 울먹여 말하는 이용수(76) 위안부 할머니.

얼마전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숨을 거두며 이 할머니에게 "200년을 살아라, 살아서 일본이 사과하는 거 보고 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일본 △미국 △독일 등 7개국의 대사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전 세계적인 시위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는 일본대사관을 12년 동안 쉬지 않고 찾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본정부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얼마 전 위안부 누드 사건으로 주요집회와 할머니들의 투쟁이 알려지게 됐지만 할머니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누드사건 등으로 시끄러울 때는 하루에 몇 천 명씩 홈페이지에 들어와 서버가 다운되고 자원봉사도 있지만 그 때가 지나면 또 잠잠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 6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지난 60년 동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이 찾아오는 날이 진정한 '광복'의 그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200년을 살아라,
살아서 일본이
사과하는 거 보고 오라"**



12기 한총련 의장 인터뷰

"왜소화된 학생운동 극복할 터"

12기 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20일 광운대에서 열렸다. 이에 한총련 의장을 만나 새학생운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11기 한총련을 평가한다면.
= 11기 총노선에서부터 새학생운동에 대한 합의와 전망을 밝히면서 새학생운동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됐다고 본다. 그리고 한총련 합법화 투쟁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권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묻혀있었던 한총련 수배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한 것은 모범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슈화된 만큼 대중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이지 못한 측면과 국보법 철폐투쟁과 대중투쟁이 잘 결합되지 못한 부분이다.



백종호(한국외대 총학생회장)12기 한총련 의장.

- 12기 한총련에서 생각하고 있는 새학생운동의 비전은.
= 새 학생운동은 양적, 질적으로 왜소화된 학생운동의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기층 조직을 복구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2기 한총련은 학생회를 혁신하고 근본에서부터 강화하기 위해 사상문화운동 전략, 조직운동 전략, 정보화 전략을 제기했다.
이 중 사상문화운동은 대학사회 내에 만연한 경쟁이데올로기,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올바르게 진보적인 건강한 가치관을 확산하는 운동이고, 조직운동은 실제 기층 학생회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모범을 경쟁적으로 확산 전파하는 사업이다.
또 학생운동 정보화 전략은 21세기에 걸맞는 '현대화된 학생회'의 새로운 상을 구현하는데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이자, 반드시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 새학생운동조직체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대한 견해는.
= 새학생운동조직체는 상층의 논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

니라 기층에서의 활발한 요구와 움직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한대련에 대해서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아우르는 기본 조직들과 탄핵안에 대한 비상대책위 등의 사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한대련 사업은 다른 조직체가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 5월 축전과 출범식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이유.
= 한총련 출범식과 5월 축전을 함께 진행하면서 한계 지점이 있었다. 300만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과 한총련 일꾼들의 단결과 결심을 높이는 장을 결합시키는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다. 한총련 출범식은 한총련 출범식답게, 5월 축전은 5월 축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임시체제가 해소되면서 1월에서부터 5월까지의 공백은 조직운영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한총련 대의원대회 성사 이후 출범선언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세안에서 한총련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결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탄핵 · 이라크 파병 반대 강연회

총선은 반노 · 친노가 아닌 민주 · 반민주 구도로 진행돼야 할 것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반대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탄핵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일 저녁 수만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규탄대회를 열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탄핵 관련 토론회와 강연회를 주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 17일 본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강연자로 초대된 '탄핵 무효,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강연회'가 서강대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강 교수는 이번 탄핵과 관련해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군사정권의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탄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KBS와 MBC에 제기한 여론 조작설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노사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즉 강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이 탄핵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신문방송학과 김홍호 군이 탄핵정국 후 앞으로의 총선 구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친노와 반노의

구도가 아니라 민주 반민주의 구도로 가야한다"며 "단지 감정적으로 열린우리당에 표를 붙여주는 것이 아닌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개혁세력이 함께 가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탄핵 관련 강연회 이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강연도 이어졌다.

특히 얼마전 스페인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다시금 이라크파병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서 강 교수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이 북한을 보다 쉽게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격"이라며 결국 한반도의 위기라는 심각한 결과가 돌아올 것임을 시사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위풍당당 동국인

본교 축구부 김용해 감독

동약의 '히딩크' 되어 돌아온 지도자



지난 2002년 국민과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뤄낸 월드컵 본선 4강 진출 신화, 그리고 이 신화를 이끈 또 하나의 주인공인 '히딩크' 감독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본교 축구부도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공동 3위 입상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끈 '히딩크'는 바로 본교 축구부 감독 김용해(체교81졸) 동문이다.

"축구는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개인기와 팀워크 그리고 지구력이 중요하죠."

김 감독은 중학교 1학년 당시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축구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훈련에 지치기도 했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축구만의 독특한 매력과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체육 선생님 덕분에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해준 체육 선생님과 축구의 매력 때문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그는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본교 축구부를 이끌었다. 대학 때 실력을 인정받은 김 감독은 프로팀인 럭키 금성과 유공으로 무대를 옮겼으나 연골

등의 부상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아쉽게 접어야만 했다.

이후 그는 축구 선수라는 인생을 포기한 대신 축구 지도자로 방향을 전환했다. 95년도에는 경기도 학생대표 감독을 역임했고 96년도에는 주니어 축구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으며, 그 후 하남고등학교 체육교사 겸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러던 중 본교의 SOS 요청에 '약화된 축구팀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각오로 지난 1월 돌아왔다.

하지만 축구부 전용 운동장이 없는 탓에 각 단과대 행사와 수업시간 등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아 연습이 어려웠고 잦은 부상과 얇은 선수층 때문에 시합 때마다 전술적으로 많이 고심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대회가 지방에서 열리다보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응원을 가기가 어려워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이에 선수들을 다독이며 이끌어야만 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며 새벽에는 지구력 훈련, 오전에는 기본기 훈련, 오후에는 전술 훈련, 야간에

는 체력 훈련 등 혹독한 훈련을 강행했다. 그 결과 프로 2군 팀들도 10여개 이상 참여하는 가장 큰 아마추어 대회인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52개 팀 중 공동 3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김 감독은 오는 4월 11일부터 진행되는 '2004 험멜코리아배 전국준거대학축구연맹전'과 5월에 열릴 예정인 '대학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회 때 2명의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 다음 경기 출장이 불투명하고 다른 선수들도 지쳐있는 상태라 좋은 성적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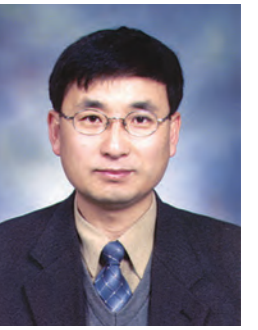
그럼에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김용해 감독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또한 열광적인 서포터즈인 1만 2천 동약인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축구부는 곧 '살아있는 신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현대판 과거제도와 사회구조

사서삼경이나 제자백가들의 문장 중에서 옛 사림들이 생각하던 올바른 '도(道)를 담은 산문'인 '고문진보' 전집 맨 처음에 나오는 글이 송대의 제3대 황제 진종(재위 998~1022)의 권학문(勸學文) 즉, 학문을 권장하는 문장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인범
문과대 사학과 교수

집을 부유하려고
좋은 밭 사려하지마라,
책 속에 본래부터
천 석의 곡식이 있다네.
평히 기거하려고
높은 집 지으려 말라,
책 속에 본래부터
황금으로 된 집이 있다네.
문 밖에 나섬에
따르는 이 없다 한하지 말라,
책 속에 수레와 말이
딸기처럼 많다네.
장가가려는데
좋은 매파 없다 한하지 말라,
책 속에는 얼굴이 옥같이
예쁜 여인 있다네.
남아가 평소의 뜻을
떠고자 한다면,
육경(六經)을 부지런히
창 앞에서 읽어야하리.

거르는 일이 많았는데, 일단 과거시험의 최종단계로 성(省) 단위에서 실시하는 향시(鄉試)에 합격하자 그 지방의 유력자가 대금을 가지고 달려왔고, 주거지 및 토지와 상점을 제공했다. 게다가 한 부부가 찾아와 몸을 의탁하면서 하인이 되겠다고 하는 등 생활이 일변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면 지위나 신분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 송대 이후 서민들도 좁디좁은 상층사회로의 이동을 위해 공부했던 것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도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임용고시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 존재하고 있다.

천공(天空)에 걸려있는 화려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옥좌(玉座)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인재들이 고시원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 이전의 시대와 닮았다.

당대의 제2대 황제 태종(재위 627~649)은 과거 실시로 인해 인재들이 모두 백발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돈과 시간과 정열을 불태운 학생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워지자, 전공을 포기하고 법대나 의대에 다시 들어가려고 재수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박한 사회적 성공(취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사회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고수동정



△김정매(영어영문학)=지난 1월부터 한국로렌스학회 회장으로 집무. 19세기와 20세기 영국·미국의 소설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분석한 저서 '페미니즘 소설읽기' 출판.



△김혜중(통계학)= '4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cademy of E-business'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아틀란틱시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방문.



△고유환(북한학)=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과 남북화해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위싱턴 한미안보포럼에서 '북핵위기와 6자회담'에 관한 주제발표 위해 미국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방문.



△김규석(건축공학)=환태평양 강구조 학술회의 참석 위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통비치 방문.



△김방목(연극학)=세계 연극 평론가 협회 집행위원. 러시아 골든 마스크 페스티벌 참석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스크바 방문.



오늘의

한 김지영 (교육3)

아프가니스탄 자원 봉사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를 마친 한국인 사진기자를 만난 후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비지만 얻으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던 것이다.

“국경지대에서 질병 때문에 눈 부분의 피부가 썩어 움푹 패인 아이를 봤어요. 도와야겠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NGO단체에서 예정에 없던 자원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김 양은 주로 수도인 카불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식량을 공급하는 봉사 활동을 했고 남부지역 칸다르에서도 식량지원 봉사 활동을 했다.

특히 칸다르는 탈레반 정권의 붕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파슈툰 종족이 살고 있어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항상 목숨이 위태로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짐을 쌓아 두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아프가니스탄 남자들이 외국인인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거리로 나설 때면 매번 한 두 번씩 성추행을 겪기도 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극한 상황이다보니 상대방을 아껴주고 걱정해주면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남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에서 느꼈던 것이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NGO 활동을 하거나 대안 학교 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한김 양. 그는 매번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하며 눈앞의 행복은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정작 생명권을 위협받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겐 전쟁을 막을 힘이 없어요.”

이라곤 추가파병이 결정된 지금,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김지영(교육3) 양이다.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 문화를 직접 겪어보고 싶어 홀로 중동지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당초 한김 양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실크로드를 따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우연히 이란의 국경지대에서 아프가니스탄 취재

동약론

한지봉 두가족



“가상대학 접속이 또 안되네. 지각체크 될 텐데”
“e-class도 안돼. 교수님이 오늘 안으로 과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지”
두 학생이 컴퓨터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서버 접속 오류가 몇 번째 발생해 출석체크나 과제물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본교 사이버강좌를 수강하거나 e-class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종종 가상대학 홈페이지 오류 때문에 당황해한다. 이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해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사이버 강좌와 e-class 프로그램은 가상대학이 운영하고 있고 서버 및 여타 관련 문제는 정보관리실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두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교체했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서버 용량 부족 등에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프로그램이 서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 프로그램 관리는 가상대학 측이 맡아야 한다.”

결국 두 기관 모두 ‘가상대학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인식은 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부서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관련부처에서는 ‘문제인식’만을 반복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원인분석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경찰은 최근에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때의 악습이었던, 1989년 개정 때 질서유지인을 돌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야간집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껏 야간집회를 허용한 적이 없다. 야간에는 정치성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 행자위는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한 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집회 자유는 정당한 권리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검열제를 금지하는 동시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또한 금지한다. 이들 자유는 민주사회라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들이다. 그런데 집시법은 사실상의 허가제를 강요한다.

집회 신고할 때부터 신고사항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서 보완통고를 하고, 끝내는 금지통고를 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시법 개악, 이제 그만 끝내자

학교 주변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도 집회는 금지되고,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15개 주요도로에서 행진도 금지될 수 있다. 이미 주택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은 1999년 개정 때 만들었다.

이런 모든 판단은 경찰의 재량에 달렸다. 이리다 보니 집회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서울 시내에 유치원·초·중등학교는 약 2천3백 개에 달하고, 군사시설만도 여러 곳이다. 대사관 주변에서도 소규모, 휴일 집회만 허용된다.

더욱이 앞으로 5월말 이후부터는 소음 규제가 지 당한다. 경찰에서는 소음 규제 기준으로 주간

80db을 들고 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60db이고 조금 큰 소리만 쳐도 80db은 금방 넘어가 버릴 것인데, 앞으로 집회는 이제 확성기를 쓰지 못한 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조용히 집회를 치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시법은 또 다른 집시법을 부를 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권리로 언론의 자유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누구를 위한 자비인가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는 학교의 문제를 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년을 넘은 동안 문제입니다. 사회학과 성추행 혐의교수가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과 학생들은 성추행 혐의교수에 대해 3년 동안의 지속적인 수업 거부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역시 그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사회학과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회학 전공학생의 단 한 사람도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의 수업은 개설되었습니다. 모 학과 12명의 학생들 중심으로 사회학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전공학생들의 피해를 헤아리고 부디 수강신청의 정정율, 수강신청의 취소 를 부탁드린다고. 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고 알만큼 안다. 우리에게도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수업 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사회학과 학생들의 그 교수에 대한 전공수업 거부가 쌓이고 쌓이면서 점차 전공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을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피해 받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조계중 앞에서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목청껏 하소연 해보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의 견제함입니다.

‘자아와 명상’ 시간에 ‘불교와 인간’ 시간에 들었던 부처님의 자비가 성추행 혐의교수를 위한 자비였던 건가요.

중국 10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언론에서는 연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동국대학교의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피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교수님들, 성추행 혐의교수를 어린 우리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부디 부디 헤아려주세요.

한정훈(사과대 사회4)

국민들의 정치참여 지속되길

요즘은 어딜 가도 운동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말들이 오고간다.

그 속에 이르면 가깝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60년대에 고생했던 노년세대부터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까지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3월 20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3.20 100만인 대회에는 전국적으로 몇 십만의 인파가 모여 노무현 탄핵과 관련한 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민의 모습을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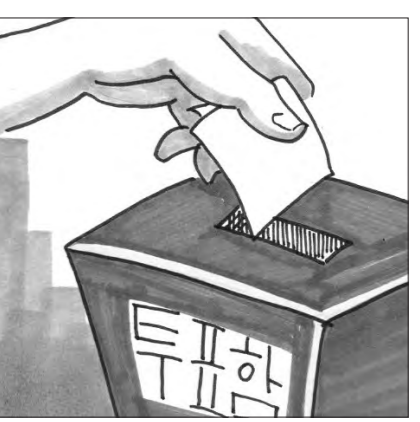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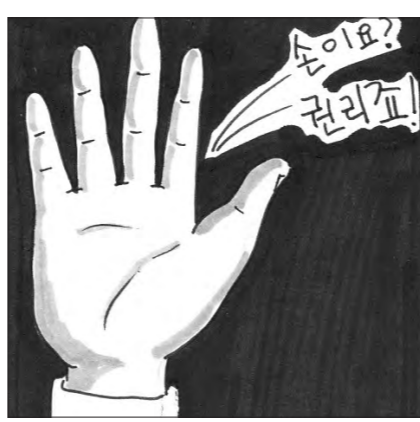
외신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집회를 연일 보도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에 놀라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시 이리다 말했지’라며 이러한 정치적 관심이 뜨거운 감자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냉소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얼마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한창 뜨거워진 정치적 열기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인것 같다.

자신의 일도 제쳐두고 두 손에 촛불을 든채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지금의 정치 참여의 열기가 이전과 다르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대영(사과대 신방2)



소나기

16대 국회,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16대 국회, 다른 사람이 했어도 잘 했을까. 다른 사람 비판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비판하길.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일주일 밖에 없다면 국회로 쳐들어간다. 그리고 193명 전부다 패 버릴 거야.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다. 그들을 동정할

필요 있는가. 차라리 국민에게 국회 해산권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나은 대안이다.
△국민이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권이 아니다.
△제발 이중모션은 좀 빼자고.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었나요.
△국회, 직접 겪어보고 나서 평가하고 싶다.
△난 수구 세력보다 지금 설치는 노사모 회원들이 더 무섭다.
△남 얘기... 신경 쓰기 싫다.
△언제나처럼 잘 놀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
△수구 세력들의 최후 발악이다.
△입에서 풀처럼 욕이 흘러 내린다.
△잘한 것 같은데 왜들 그러지
△상실의 시대다. 정치하는 분들이 87년 6월 항쟁으로 쫓겨난 대통령 직선제를 무시했다.
△월드컵의 열기가 여중생 추모의 열기로 그리고 국민주권회복의 뜨거운 함성으로 이어졌다.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23일 사회학과 이정은! 생일 축하해
-99 선영
△21일 광고학과 심진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친구들
△21일 회계학과 유승빈 생일 축하해
-98 동기 상석
△똥파리 여친 생겼어요. 28년 만에 처음 이래요. 예쁜 사람 키우세요.
△하나야 복학 축하해. 사발주 한 잔 사야지.
-조해
△통계학과 04학번 정애린, 강주희, 사랑해. 사랑해.
△경행 훈이 오빠 합격 축하해요
△망태야 생일 축하해. 짬밥 많이 먹어.

열심히 합시다

△수습기자 선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S.M
△창운아 꼭 합격해라
-친구
△정은 언니, 올해는 꼭 의로움에서 벗어나
-해선
△다량관 매점아까지! 너무 예뵤요. 일

열심히 하세요.
-팬
△다량관 감쪽이 안경사 너무 감쪽해요.
△진욱아 세 번 남은 시험 꼭 다 합격하길 기원할게
-불꽃
△STK 열심히 해라.
△동국아마야구부(L.A.E) 3연승을 위해 파이팅
-아마 야구부
△2004 사회과학대 교육투쟁 승리!
△2004 1학년 반 학생회 활동 열심히.
△동국대 경제학과 DECONS,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열 힘내세요.
△윤아야 명인이 알아하느라 수고했다.
-JSH
△이 교수님 수업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

△감다, 투정 부리지 마.
△사학과. 무사히 답사 다녀오시다. 04새내기 전원 참석하자.
-사
△Law Breakers 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량관 매점아까지! 너무 예뵤요. 일

금주의 식단

Table with 3 columns: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Rows list dates and menu items like '비지락수제비', '순두부찌개', '원장찌개'.

금주의 추천메뉴

치킨샐러드 (동국관 화요일 석식)

바삭하게 튀겨낸 닭살에 아삭거리는 양상추와 양배추, 오이 등 야채와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였다. 신선한 야채에는 춘곤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환
부주: 김주환
편집: 김주환
편집: 김주환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술은 이제 그만 ~ 이런 엠티 어때요?

레저·역사기행 등 문화행사의 하나로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엠티. 학기 초가 되면 구성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학과와 동아리 등 여러 단위에서 떠나는 엠티(Membership Training)는 그만큼 대학생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요즘에는 '엠티촌'부터 엠티를 알선하는 전문 사이트, 업체까지 있어 좋은 시설의 엠티를 손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예전 엠티의 모습은 어땠을까.

교수·학생 교류의 장

우선 60년대 엠티문화를 살펴보면 숙박이나 교통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돼 있지 않아 무박 1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당시 엠티는 단순히 선·후배간의 대화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숙박이나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엠티가 1박 2일로 변하게 되고 체육대회가 생기는 등 오락적인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순히 재학생만이 참여하던 방식에서 교수나 졸업한 선배들도 함께하게 됐다. "교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축구시합도 하면서 서로 교류의 장이 됐지" 80년대에 대학생 활을 한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김진환 과장의 말처럼 엠티는 그 시대에 서로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지나친 과음문화 아쉬워

하지만 요즘은 엠티문화가 지나치게 술 문화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신입생을 위한 엠티 자리에서는 술을 지나치게 마신 학생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M-마시자 T-토하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엠티는 선·후배간, 동기간 소통의 자리가 아닌 단순한 '술자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7학번의 엄준근(통계학) 교수는 "요즘 학생들의 엠티를 보면 이전과 다르게 너무 향락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엠티를 또 하나의 문화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근래의 엠티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다양한 엠티문화 늘어나

스포츠와 스릴을 느끼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떠나는 레저엠티, 지난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떠나는 역사기행엠티 등이 이런 예이다. 이와 같이 엠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벤트적인 엠티행사 역시 늘고 있다. 갯벌에서 조개, 게 등을 채취하고 머드팩을 즐기는 갯벌체험, 바나나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체험, 산 속에서 불감탄으로 즐기는 서바이벌체험 등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엠티 및 각 분야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한 엠티문화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 모두 단순히 순간을 즐기는 소비적인 엠티보다 대학생살에 무언가 남길 수 있는 경험과 추억 등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엠티를 마련하고 '멤버십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엠티장소 소개

“섬으로 산으로~엠티 매력 마음껏 느껴봐”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엠티장소로는 강촌과 가평, 대성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이미 엠티촌으로 널리 알려져 대학생들이 단체로 엠티를 가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엠티촌 외에도 잘 찾아보면 엠티의 재미를 몇 배 더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소야도

소야도는 지난 2002년에 개방한 영화 '연애소설'의 촬영지다. 때문에 이곳은 점차 관광명소로 변모하고 있지만 본래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소야도 근처 '페루루 해수욕장'에 가면 길이 약 700m의 넓은 백사장에서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죽조골해수욕장'에서는 썰물 때 무인도에 갈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린다. 또한 '가섬' '간데섬' '섬' 3개의 섬이 나란히 있는데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 3개의 섬이 연결된다.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록수휴양원'은 폐교를 활용해 만든 곳으로 콘도식 주택 5개동 및 캠프파이어장,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대 100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이곳의 숙박비는 20여명이 숙박할 때 20만원정도이다. 이곳에 가는 방법은 지하철 동인천역에서 내려 연안부두행 시내버스를 탄

후 연안여객선터미널에 하차한다. 이곳에서 덕적도행 배를 탄 후 덕적도에서 다시 소야도 행 종선을 타면 된다. 서울에서부터 약 2시간 30분~3시간 정도 걸린다.

영흥도

지역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영흥도는 지난 2001년 영흥대교가 놓여져 이제 육지에서 바로 섬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장경리 해수욕장과 십리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십리포 해수욕장은 작은 자갈로 이루어졌으며 그 앞의 나무들도 볼만하다. 또한 장경리 해수욕장은 썰물때 물이 빠지면 바지락을 캐는 재미도 있다. 이외에도 영흥도는 크고 작은 재미가 많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젊은 대학생들의 엠티장소로 적합하다. 이 일대 숙박시설 가격은 25인 미만일 경우 20만원 정도이다. 가는 방법은 인천의 주안과 민수동에 있는 영흥도행 직행버스를 타면 된다.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시간은 약 2시간정도 소요된다.

녹수봉

경기도 청평 덕현리에 위치한 녹수봉은 2시간가량의 산행을 즐긴 후 시원한 녹수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에 좋다. 청우산과 조종전이 있는 녹수계곡은 큰 나무들이 주위에 많으며, 녹수동산

기술에 지리한 시골집들의 풍경이 무척 예쁘다. 비록 이전보다는 많이 알려졌지만 다른 곳에 비해 아직 한적한 분위기와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의 숙박시설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이 민박집이며, 1인당 2~3천 원으로 계산한다. 방도 3~40명의 대형 인원을 수용할 만큼 크다. 이곳은 청량리에서 경춘선을 타고 청평역에서 내려 덕현리행 버스를 이용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2시간.

행복휴양림

행복 휴양림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주변경치가 무척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많은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 정선 5일장 등 시간을 잘 맞춰가면 좋은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어 좋은 엠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4~70여명까지 한방에 투숙이 가능하며 요금은 방마다 각각 다르지만 인원이 많을 수록 개인부담은 적어진다. 한 예로 4~5명은 5만원, 20명 인원은 20만원정도이다. 이곳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정선 터미널행 버스를 타거나, 청량리역에서 증산행 기차를 타고 증산역에서 다시 꼬마기차를 타면 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정보마당

- 취업**
- 엔씨소프트**
모집분야: 게임 마스터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상시
- 모노마 코퍼레이션**
모집분야: 정규직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27일까지
- 아인스학원**
모집분야: 초등부 수학선생님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상시
- 강북삼성병원**
모집분야: 출장건강검진 행정지원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24일까지
- The Thomson Corporation(korea) Limited**
모집분야: 사무관리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26일까지
-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본관 3층)에 문의하세요.**

- 아르바이트**
- 아구경기장 대표 관리**
조건: 30세이하
인원: 90명
시급: 5,000원
접수기한: 3월 24일까지
문의: 02)780-3558
- 아구경기장 관리책임자**
조건: 60세이하(남)
인원: 9명
시급: 6,250원
1일 4시간
- 출장 건강검진 행정지원**
조건: 20-27세, 남자
인원: 00명
일급: 34,000-39,000원
접수기한: 3월 24일까지
문의: 02)2001-2662~3
- 롯데월드 아르바이트**
인원: 남 1명
업무기간: 오전12시 ~ 오후 8시
시급: 3,000원
접수기한: 3월 27일까지
문의: 02)588-6483
- 본교 연구처 아르바이트**
조건: 엑셀 능통자, 전공무관
월급: 1,100,000원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문의: 02)2260-3055

- 조흥은행 일반 사무 보조**
조건: 워드 및 엑셀, 인터넷 가능자
시급: 3,500원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문의: 02)2010-7002
- 청소년 성 관련 업무 보조**
업무기간: 4월 1일~6월 30일
시급: 상당 후 조정
문의: 02)2100-6867
- 전산 보조 아르바이트**
업무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문의: 02)361-1801
- 내근직 아르바이트**
조건: 휴학생, 졸업생
접수기한: 3월 25일까지
문의: 02)2122-7261~2
- 기타**
- 학군서관 후보생 모집**
조건: 2학년 재학생
(만 20-27세, C학점 이상)
모집기간: 3월 15일 - 4월 10일
문의: 02)2260-8537, 8(교내 학군단)
- 대학 군장학생 모집**
조건: 1, 2학년 재학생
(만 20-27세, C학점 이상)
전반기: 4월 1일 - 5월 15일
후반기: 8월 23일 - 9월 18일
문의: 02)2260-8537, 8(교내 학군단)

한의학으로 풀어본 건강이야기

요즘 들어 맑은 하늘을 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반갑지 않은 모래 바람, 황사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황사란, 중국 북부로부터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 하늘을 덮었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혹은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합니다. 일제시대부터 '황사'라는 명칭이 쓰였는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토우(土雨)라 적었으며 '흙비'라 불렀습니다. 황사로 인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병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황사 바람에 노출되면 목이 칼칼해지면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코 막힘이나 콧물, 심하면 가래 섞인 기침도 유발됩니다. 또한 황사는 태양을 차단해 빛을 산란시켜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눈이 따갑고 가려워져 자꾸 비비게 되고 이로 인해 결막염이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철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드는데, 황사야말로 3, 4월에 집중적으로 불어오는 안 좋은 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황사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 특히 콧속과 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양치질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인화
본교 한의과대학 교수

손으로 말해요

“선배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선배 배고파다 먹다(밥) 사다 받다 부탁하다

제공 = 손짓사랑회